

손혜원 서영교 조해주

# '손·서·조' 사태에 여야 극한 대치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강행으로 촉발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장기화 하면서 2월 임시국회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을 이유로 지난 24일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손혜원·서영교 의원의 복포 부동산 투기와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초(超)권력형 비리'라며 날을 세우고 있어 당분간 냉기류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당은 28일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조 위원 사퇴 전까지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용세습 국정조사 실시 계획, 채택,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특별검사 도입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국정조사 등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앞서 조 상임위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소속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대어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27일에는 국회에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를 열고 현 정부 권력비리 규명도 선언했다. 한국당이 거론한 '초권력형 비리'는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및 손혜원 의원의 복포 부동산

나경원 "與, 침대축구 일관...릴레이 농성 계속" 강공 민주, 전대 앞둔 한국당 지지층 재결집에 '평가 절하' 손혜원·서영교 의혹 '초권력형 비리' 규정도 "불순"

투기 의혹은 물론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복포까지 포함돼 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1년7개월 동안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어왔다. 모든 권력을 동원해 우파를 조롱하고 탄압한다"며 "국정조사 해야 하고 조해주, 손혜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1월 국회 내내 침대 축구로 일관했다. 고용세습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채택하지 않고 김태우 특검, 신재민 국정조사도 답을 안 하고 있다. 조 상임위원 사퇴도 저희가 분명히 요구했다"며 "여당이 답할 때까지 저희는 릴레이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발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을 재결집하기 위한 정쟁용으로 평가가 절하하면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손혜원·서영교 의원 문제 등을 한데 모아 초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할 것 역시 불순한 의도가 담긴 것

이라는 입장이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한국당이 유치원생, 체육계 성폭력 근절법안, 입세완법 등 민생 현안을 외면한 채 소모적 정쟁에 몰려 2월 국회가 올 스톱 위치에 직면했다"며 "더 이상 국민을 우롱 말고 분업에 충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때 한나라당 출신 선관위원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조 상임위원을 옹호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당 보이콧 방침과 릴레이 단식소가 2월 전당대회 당권경쟁과 내년 총선 전략의 일환이라면 본연보다 잦아들게 될 것으로 염증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인표 수석대변인도 최고위 직후 "당 사무처에서 확인한 결과 (조해주 상임위원은) 당적도 없고 특보 임명장 발부 기록도 없다"며 "민병두, 김태연 의원이 조 상임위원을 임명할 기약이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 저도 조 상임위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불발로 유치원법 등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며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조 상임위원을 임명한 상황에서 한국당을 국회로 복귀시킬 묘수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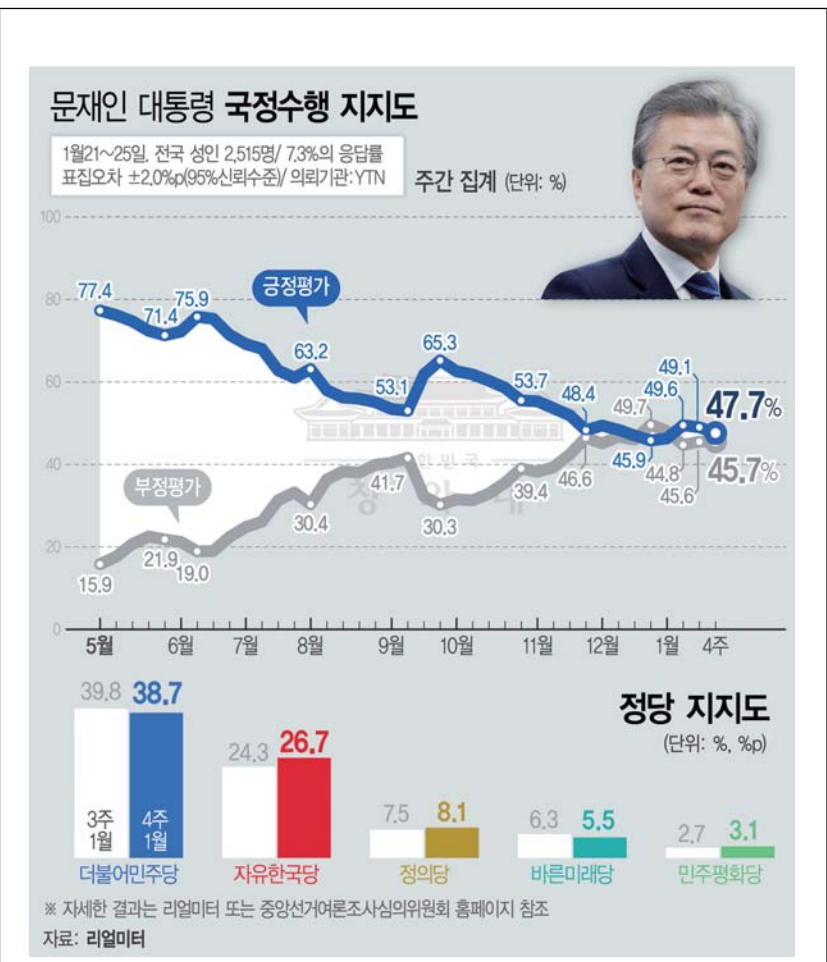
다음 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국내의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2월 임시국회도 일정부분 책임을 모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 법안의 1월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자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해놓고 2월 국회를 열지 않으면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를 보인다"며 "솔직히 말해 일하지 않을 수 있고 국회에 나오지 않으니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누구보다 반가워하는 게 민주당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양당은 선거개혁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서로 눈치만 보던 차에 서로에게 발목을 제공하고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 회피하는 등 저대적 공생관계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文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한 47.7% 지난주비 1.4%p ↓ ... 손혜원·SOC 예타 논란 영향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1.4%p 내려간 47.7%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1~25일 닷새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공개한 1월 4주차 주간집계(95% 신뢰 수준, 표집오차 ±2.0%p, 응답률 73%)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7.7%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1%p 증가한 45.7%(매우 잘못할 28.9%, 잘못하는 편 16.8%)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3%p 증가한 6.6%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p)인 2.0%p로 집계됐다. 지난주 오차범위(3.9%p) 밖이었던 격차는 더 좁아 들었다. 새해 잇따른 경제행보로 49.6%(1월 2주차 주간집계)까지 올랐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손혜원 의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지방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9.4%p ↓ · 41.9%), 대구·경북(6.2%p ↓ · 31.2%)에서 큰 폭으로 빠지면서 하락세를 이뤘다. 광주·전라(2.8%p ↓ · 65.3%), 서울(1.2%p ↓ · 47.0%)도 소폭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20대(5.6%p ↓ · 48.9%)와 50대(5.4%p ↓ · 40.6%)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다. 직업별로는 사무직(3.9%p ↓ · 58.8%)이, 지지정당별로는 무당층(3.1%p ↓ · 27.1%)에서 각각 지지율이 빠졌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1.1%p 하락한 38.7%를 기록하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궤를 같이했다. 자유한국당(26.7%), 정의당(8.1%), 바른미래당(5.5%), 민주평화당(3.1%) 순으로 민주당의 뒤를 이었다.

2주 연속 상승세를 탄 한국당은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 한 2016년 10월 3주차(29.6%)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장기간 이어지며 정부·여당의 약세가 지속된 데 따른 반사이익과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홍준표 전 대표 등 주요 당권주자들의 지역행보가 잇따르며 언론보도가 증가하는 컨디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뉴스스

## 한국당 비대위 '황교안 출마자격' 공개적 거부감 "특권 아니고 뭐냐"

### 최병길 "인적새신 대상이 영입대상 되는 현실 서글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전당대회 '출마자격'을 두고 한국당 안팎에서 연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28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도 공개적으로 황 전 총리의 출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는 최병길 비대위원이 황 전 총리의 출마자격 논란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평소 공개발언을 자제한 최 의원은 자심한 듯 황 전 총리가 출마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비대위원은 황 전 총리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무총리와 권한대행을 지낸 분이 우리 당 인적새신 대상이 아닌 영입대상이 되는 현실이 서글퍼다"며 "한법 제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다. 당헌당규도 모든 당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누구

도 예외적 적용이나 해석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현호 비대위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 의원은 "3개월 이상 (당 비리) 납부해야 책임당원"이라며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외가 있다면 특권이 아니고 뭐냐"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은 "(황 전 총리)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피선거권이 있는데 의무를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권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자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곧은 표정으로 정 비대위원을 향해 "총정에서 한 말이겠지만 그 이야기는 비공개 때 토의를 하고 나서 공개적으로 말할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말하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 정책위의장의 소매를 잡으며 말리기도 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당 선관위원장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최근 황 전 총리의 출마자격 논란에 대해 '형식논리'라고 사실상 출마에 힘을 실어주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이견이 나뉘는 부분은 법리로 따져야지 가치적 논쟁을 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출마자격) 부분은 비대위, 선관위, 상임정국위 등에서 여러모로 고민해야 하는데 당헌당규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그걸 '형식논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에서 편파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와 논란이 심화된다"며 "선관위도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